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일반부문

객체지향 존재론의 네 가지 긴장을 통한 건축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rchitectural Interpretation through the Four Tensions of Object-Oriented Ontology

○문 형 주* 이 효 원**
Mun, Hyeong-Ju Lee, Hyo-Won

Abstract

This paper addresses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raditional architectural criticism and proposes a new framework for architectural interpretation based on Graham Harman's Object-Oriented Ontology (OOO). Conventional architectural theories, such as Functionalism, Phenomenology, and Deconstruction, have predominantly relied on human-centric thought, often reducing architecture to mere function, experience, or sign.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study introduces the core concept of "the Four Tensions" from OOO to analyze how architecture operates as an 'object-in-itself' beyond human perception or interpretation.

키워드 : 객체지향 존재론, 네가지 긴장, 건축 해석

Keywords : Object-Oriented Ontology, Four Tensions, Architectural Interpretation

1. 서론

근대건축은 루이스 설리번(Louis Sullivan)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합리주의와 기능주의를 건축의 본질로 간주했다. 이 사조는 건축물을 인간의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해하며, 건축을 도구적 존재로 환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역사적 상징과 맥락을 재해석하였고, 해체주의는 형태의 진복과 비정형성을 통해 근대건축의 경직성과 도식성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 역시 여전히 인간 중심의 인식 체계를 전제하며, 건축 비평의 근본적 사유 방식 또한 환원주의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건축물은 여전히 기능, 경험, 기호 등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의미를 부여받는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대해 철학자 그레이엄 하먼은 존재를 인간의 인식과 연관지어 설명하려는 상관주의(Correlationism)를 비판하며, 인간의 지각이나 해석으로 환원되지 않는 실재로서의 ‘객체’를 사유하는 객체지향 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 이하 OOO)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존 건축 비평의 한계를 보완하고, 그레이엄 하먼의 객체지향 존재론이 제시하는 2) “네 가지 긴장”을 건축 해석의 핵심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건축을 기능, 경험, 기호 중심의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존재’로서의 객체로 사유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 틀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이 단순한 사용의 매개나 체험의 그릇이 아니라, 독립적 객체로서 어떻게 드러나고 동시에 은폐되는지 그 존재론적 위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의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우선, 건축이 독립적 객체로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현전·은폐하는지를 규명한다. 아울러, 객체지향 존재론의 “네 가지 긴장”이 기존의 기능·형태·기호 중심 분석과 대비하여 어떤 원리와 분석 단위를 통해 건축 객체를 해석하도록 만드는지를 탐구한다. 상기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레이엄 하먼의 OOO 핵심 개념, 특히 실재/감각 객체와 실재/감각 성질 간의 네 가지 긴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론적 범위를 설정한다. 사례는 시대와 양식을 초월하여 선정된 주요 건축가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피터 Zumthor와 안도 다다오의 건축을 통해 수직적 긴장과 형상적 긴장을, 프랭크 게리와 SANAA의 작품을 통해 수평적 긴장과 인과적 긴장을 분석한다. 연구

2) Graham Harman, (2023) Architecture and Objects 174p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학·석사 연계과정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eon-nam University, 185646@jnu.ac.kr)

방법으로는 000의 이론적 틀을 정립하는 철학적 문헌 연구와, 선정된 건축물의 형태, 재료, 공간 등을 분석하는 건축 사례 분석을 병행하여 논지의 타당성을 논의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객체지향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

그레이엄 하먼은 존재를 오로지 인간의 인식과의 상관 속에서만 파악하려는 상관주의를 비판하며, 객체지향 존재론을 제시한다. 상관주의는 주체(마음)와 객체(세계)가 상호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전제함으로써, 인간 없는 세계 혹은 세계 없는 인간을 사유하는 길을 봉쇄한다. 이에 비해 000는 인간 중심의 관점을 벗어나, 모든 존재가 인간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객체(Object)’임을 주장한다. 000의 핵심은 이러한 객체가 그 객체를 구성하는 성질들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다는 비환원주의(Non-Reductionism)와, 객체가 언제나 자기 성질·관계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 있는’ (Withdrawal) 은폐성에 있다. 이 은폐성 때문에 객체는 어떠한 관계나 기술로도 완전히 고갈될 수 없으며, 항상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부분적으로 숨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2.2 000의 네 가지 존재론적 항

객체지향 존재론(000)은 객체를 실재/감각·객체/성질이라는 사중 구조로 파악한다. 첫째, 실재적 객체(Real Object)는 인간의 지각이나 타자와의 관계로부터 부분적으로 은폐된 채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객체 그 자체다. 둘째, 감각적 객체(Sensual Object)는 경험과 지각 속에서 하나의 전체로 주어지는 대상이다. 셋째, 실재적 성질(Real Qualities)은 객체에 내재하되 직접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속성들이며, 넷째, 감각적 성질(Sensual Qualities)은 빛, 질감, 온기처럼 감각적 객체가 표면에서 드러내는 특성들을 가리킨다. 이 네 항은 서로 완전한 대응을 이루지 않는 느슨한 관련성(Loose Relation) 속에 놓인다.

2.3 000의 네 가지 긴장

3) 객체와 성질의 느슨한 연동에서 파생되는 네 가지 긴장은 건축이 감각적으로 드러나면서도 실재를 은폐하는 방식을 진단하는 해석 틀이다. 수직적 긴장은 실재적 객체가 물러선 채 표면의 감각적 성질만 전면화될 때 나타난다. 수평적 긴장은 하나의 감각적 객체 안에서 빛, 재료, 질감 등 감각적 성질들이 병치·충돌해 통일성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형상적 긴장은 보이는 감각적 객체와 보이지 않는 실재적 성질 사이의 어긋남을 가리킨다. 인과적 긴장은 실재적 객체와 실재적 성질 모두가 감각·서사로 환원되지 않는 심층에서 작동한다. 이 네 긴장은 양식 및 시대를 가르는 표지가 아니라, 표면과 깊이, 감각과 실재의 불일치를 네 국면으로 포착하는 판별 도구로서 이후 사례 분석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000의 네 가지 긴장을 건축 객체의 존재론적 특성을 판별하는 구체적인 해석 도구로 정식화하고자 한다. 각 긴장별로 선정된 건축가들의 작품을 기존 비평의 관점과 000의 관점에서 교차 분석함으로써, 000가 건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표1. 000의 네 가지 존재론적 항과 긴장

	실재적 객체(RO)	감각적 객체(SO)
실재적 성질(RQ)	인과적 긴장	형상적 긴장
감각적 성질(SQ)	수직적 긴장	수평적 긴장

수직적 긴장 (실재적 객체 - 감각적 성질)은 객체 그 자체인 실재적 객체가 물러선 채 표면의 감각적 성질만 전면화될 때 발생하는 간극을 의미한다. 이 긴장은 건축물이 절제된 형상, 물성의 침잠, 빛과 어둠의 대비와 같은 감각적 단서를 통해 ‘물러서 있는’ 실재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현상학이 감각적 경험 자체를 건축의 본질로 여겼다면, 000는 감각이 실재를 암시하는 ‘증거’이자 ‘표면’으로 기능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따라서 ‘표면 감각은 강하지만 객체 자체의 존재감이 해명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수직적 긴장의 구현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수평적 긴장 (감각적 객체 - 감각적 성질)은 하나의 감각적 객체 안에서 빛, 재료, 질감 등 감각적 성질들이 병치·충돌하여 전체의 통일성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긴장이다. 건축물의 외피가 파편적이거나, 이질적인 재료가 병치되어 서로 다른 질서를 만들 때 감각적 불안정이 생긴다. 해체주의가 형태의 파편화를 ‘텍스트 해체’의 결과로 보았다면, 000는 감각적 성질들의 병치·충돌 자체가 건축물의 존재론적 긴장을 드러내는 고유한 방식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빛·재료·질감이 서로 다른 질서를 만들어 감각적 불안정이 생기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수평적 긴장의 구현 여부를 판별한다.

형상적 긴장 (감각적 객체 - 실재적 성질)은 보이는 형상인 감각적 객체와 보이지 않는 구조, 그리드, 운영 로직과 같은 실재적 성질 사이의 비상응을 가리킨다. 건축물의 감각적 외양이 그 이면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원리나 질서와 어긋나 있을 때 나타나는 긴장이다. 기능주의가 형태와 기능의 일치를 주장했다면, 000는 보이는 형태와 숨겨진 실재적 성질 간의 불일치를 통해 건축물의 존재론적 충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감각적 외양과 보이지 않는 원리가 어긋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형상적 긴장의 존재를 진단한다.

인과적 긴장 (실재적 객체 - 실재적 성질)은 객체와 그 성질 모두가 감각이나 서사로 환원되지 않는 심층에서 작동하는 간극을 말한다. 이는 환경, 기술, 규범과 같은 비가시적인 메커니즘이 건축물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유하게 한다. 현상학이 환경적 요소를 ‘장소성’으로 경험해했다면, 000는 비물질적 요소들이 건축물과 맺는 비가시적 인과 관계 그 자체를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환경·기술·규범의 메커니즘이 비가시적으로

3) Graham Harman, (2023) Architecture and Objects 174p

작동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인과적 긴장의 구현 여부를 탐색할 수 있다.

표2. 000의 네 가지 긴장과 건축 해석의 대비

긴장	기존 비평과 차이	사례
수직적 긴장	감각적 경험이 실재를 향한 '표면'으로 기능함	테르메 발스, 빛의 교회
수평적 긴장	감각적 성질의 충돌 자체가 존재론적 긴장을 드러냄	빌바오 미술관, 가나자와 미술관
형상적 긴장	보이는 형태와 숨겨진 실제적 성질 간의 불일치에 주목함	빌라 사보아, 아랍세계연구소
인과적 긴장	비물질적 요소들이 건축물과 맺는 비가시적 인과 관계를 사유함	루브르아부다비, 시애틀 도서관

3. 000의 4가지 긴장 기반의 건축적 해석

3.1 수직적 긴장 (실재의 은폐와 감각적 발현)

수직적 긴장은 실제적 객체가 한 걸음 물러선 채 표면의 감각적 성질만 전면화될 때 드러나는 존재론적 간극을 가리킨다. 현상학이 감각적 경험 자체를 건축의 본질로 보았다면, 이 틀은 감각을 은폐된 실재를 지시하는 표면으로 읽는다. 4)피터 Zumthor의 테르메 발스는 돌·물·빛이 만드는 촉각·시각적 경험을 통해 ‘장소성’을 구현한 사례로 해석되어 왔지만, 000 관점에서 보면 돌의 질감과 빛의 변화라는 감각적 성질이 은폐된 실제적 객체—건축적 객체의 자율적 존재—를 암시하는 수직적 긴장을 구성한다. 이때 건축은 단순한 경험 장치를 넘어, 재료의 비인간적 실재성을 드러내는 자율적 객체로 작동한다. 안도 다다오의 ‘빛의 교회’도 유사하다. 5)노출 콘크리트와 십자형 개구부를 통한 광의 유입이 종교적 숭고로 읽혀 왔지만, 000는 이를 미니멀한 감각적 성질이 ‘빛’이라는 객체의 실재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수직적 긴장의 사례로 본다. 요컨대 두 사례 모두 감각을 통해 감각 너머의 실재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건축이 은유적이면서도 자율적인 객체로 선다는 점을 보여준다.

3.2 수평적 긴장 (감각 객체의 통일성 불안정)

수평적 긴장은 하나의 감각적 객체 내부에서 빛·재료·질감 등 감각적 성질들이 병치·충돌하여 전체의 통일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때 드러나는 국면을 가리킨다. 해체주의가 이러한 파편화를 주로 ‘텍스트의 해체’로 해석했다면, 000는 감각적 성질들 사이의 충돌 그 자체를 건축 객체의 존재론적 긴장이 표면화되는 방식으로 읽는다. 6)프랭크 게리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전통적 질서를 해체한 비정형의 대표작으로 설명되었지만, 000의 관점에서는 티타늄 패널이라는 감각적 성질과 유동적 외피라는 감각적 객체 사이의 지속적 긴장이 시각적 드라마를 산출하는 사례로 해석된다. 즉, 표면의 성질 자체가 미학적 가치를 조직하며, 감각의 다층성이 건축을 구성한다.

7)SANAA의 가나자와 21세기 현대미술관 역시 투명한 유리 벽이라는 감각적 성질과 원형 배치·유기적 평면이라는 감각적 객체가 만들어내는 긴장을 통해 ‘계획된 모호성’을 구현한다. 이때 건축은 기능적 공간을 넘어, 감각적 성질들 사이의 관계 구성을 통해 효과를 생성하는 자율적 객체로 작동한다.

3.3 형상적 긴장 (외형과 숨겨진 논리 사이의 불일치)

형상적 긴장은 보이는 형상(감각적 객체)과 보이지 않는 구조·그리드·운영 로직(실제적 성질) 사이의 비상응을 가리킨다. 기능주의가 형태와 기능의 합치를 추구했다면, 000는 형상과 은폐된 실제적 성질의 불일치 자체가 건축의 존재론적 충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읽는다. 8)르 코르뷔지에의 빌라 사보아는 모더니즘 5원칙을 구현한 작품으로 ‘자유로운 평면’이 강조되어 왔지만, 000의 관점에서는 자유 평면과 유려한 외형(감각적 객체) 뒤에 펠로타-슬래브-그리드로 조직된 엄격한 기하 질서(실제적 성질)가 놓여 있어, 두 층위의 형상적 긴장이 분명히 드러난다. 장 누벨의 아랍 세계 연구소 역시 이슬람 문양을 연상시키는 파사드(감각적 객체)가 기계식 다이어프램과 빛 조절 장치(실제적 성질)에 의해 작동함으로써, 장식적 외양과 비가시적 작동 원리 사이의 긴장을 형성한다. 두 사례 모두 형상과 원리의 어긋남을 통해, 건축이 기능·기호를 넘어 은폐된 실재를 품은 객체로 선다는 점을 보여준다.

3.4 인과적 긴장 (비가시적 메커니즘의 실체화)

인과적 긴장은 객체와 그 성질 모두가 감각이나 서사로 환원되지 않는 심층에서 작동하는 간극을 뜻한다. 다시 말해, 감각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적 메커니즘의 인과 관계가 공간을 규정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장 누벨의 루브르 아부다비는 복합 격자와 패턴으로 구성된 돔의 구조가 광환경을 미세하게 조절함으로써, ‘빛’이라는 실제적 객체가 공간을 조형하는 근본 인과를 미학적으로 드러낸다. 이때 건축은 빛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빛의 인과를 실험·증폭하는 객체로 작동한다. 9)OMA의 시애틀 도서관 역시 유기적 외형의 인상보다, 프로그램 플랫폼·구조·설비 네트워크·정보 흐름이 얹혀 형성하는 비가시적 작동 로직이 공간과 동선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인과적 긴장이 두드러진다. 즉 이 사례들에서 건축은 형태의 감각을 넘어, 환경·기술·운영 로직이 빚어내는 인과의 장으로 존재한다.

3.5 000 분석틀의 철학적 의의

000는 건축 비평을 환원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기존의 비평은 건축물의 존재를 기능, 경험, 기호와 같은 인간의 관심사로 환원했다. 그러나 000는 건축물 자체가 가진 독립적인 존재성, 즉 객체성을 존중한다. 건축은 더 이상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도구’나 감정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와

4) 김종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6 No.07, 2020.7

5) 이규백, 디자인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v.16 no.1, 2003년

6) 양재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Vol.16 No.04, 2021.6

7) 임진우,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제61호, 2018.2

8) 성우재, 한국디자인학회 논문집, Vol.16 No.08, 202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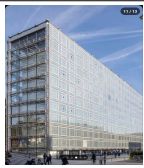
9) 김승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8 n.02, 2012.2

실재를 지닌 '주체'가 된다.

이러한 접근은 건축을 바라보는 철학적 위치를 '인간 중심'에서 *객체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OOO의 네 가지 긴장은 건축물의 표면(감각)과 그 뒤에 숨겨진 깊이(실재) 사이의 불일치를 포착하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한다. 이는 기존 비평이 놓쳤던 건축물의 '비가시성(Invisibility)'과 '은폐된 실재(Withdrawn Reality)'를 탐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존재론적 층위를 밝히는 데 기여한다.

에서 객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철학적 기여를 한다. 이 분석들은 건축물이 단순한 기능적 존재가 아닌, 그 자체로 비가시적이고 은폐된 실재를 지닌 독립적인 객체임을 사유하게 한다. 비록 OOO가 건축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점도 있으나, 이는 기존 비평이 놓쳤던 건축물의 존재론적 층위를 밝히는 데 있어 그 가치가 매우 크다.

표3. OOO의 네 가지 긴장과 건축사례 해석

긴장	수직적 긴장		수평적 긴장		형상적 긴장		인과적 긴장	
건축가	Peter Zumthor	Tadao Ando	Frank Gehry	SANAA	Le Corbusier	Jean Nouvel	Jean Nouvel	OMA
건축물	Therme Vals	Church of the Light	Guggenheim Museum	21st Century Museum	Villa Savoye	Arab World Institute	Louvre Abu Dhabi	Seattle Public Library
사진								
기존 분석	현상학적 관점에서 감각적 경험과 장소성을 구현한 사례	빛을 기호적으로 연결해 종교적 숭고함을 표현.	형태의 파편화와 비정형성을 강조.	투명한 유리 벽으로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허문 사례	자유로운 평면을 강조한 기능적 건축물.	빛을 조절하는 기계적 장치가 기능성과 미학을 결합.	아랍 전통과 현대 기술의 결합. 신비로운 공간을 연출.	'지식의 흐름'을 은유적으로 표현.
OOO 분석	감각적 성질을 통해 '건축의 본질'이라는 실재적 객체를 암시. 재료의 비인간적 실재성을 드러내는 객체로 작동	미니멀한 감각적 성질을 통해 '빛'이라는 비물질적 실재적 객체를 부각. 감각 너머의 실재를 암시하는 은유적 객체	감각적 성질(티타늄 패널)과 곡면 형태의 충돌. 감각적 드라마 자체가 미학적 가치가 됨	투명한 유리 벽과 형태 사이의 긴장을 통해 '계획된 모호성'을 창출. 감각적 관계를 통해 미학적 효과를 만들	자유로운 평면 뒤에 숨겨진 기하학적 질서의 긴장. 보이는 형태와 보이지 않는 본질의 불일치를 드러냄	아랍 패턴 뒤에 '빛 조절'이라는 실재적 성질이 작동. 보이는 외형과 숨겨진 논리 사이의 긴장을 구현.	돔의 구조를 통해 '빛'이라는 실재적 객체의 인과적 관계를 미학적으로 구현.	유기적 형태를 통해 비물질적 객체가 공간과 맺는 비가시적 인과 관계를 탐구.

4. 결론

본 논문은 그레이엄 하먼의 객체지향 존재론(OOO)이 기존 건축 비평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축을 사유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함을 논증하였다. 기존 비평이 건축물을 기능, 경험, 기호와 같은 인간 중심적 사유로 환원했던 것과 달리, OOO는 건축물 자체의 독립적인 존재성, 즉 객체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OOO의 네 가지 긴장이라는 해석 도구를 통해 건축물이 드러내는 감각적 표면과 그 뒤에 숨겨진 실재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는 OOO의 분석틀이 건축가들의 작품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명함을 확인했다. 줌토르와 안도 다다오의 건축은 감각적 성질을 통해 '물려서 있는' 실재를 암시하는 수직적 긴장을, 게리와 SANAA의 건축은 감각적 성질들의 병치와 충돌을 통해 미학적 가치를 창출하는 수평적 긴장을 구현했다. 또한, 르 코르뷔지에와 장-누벨의 작품에서는 보이는 외형과 숨겨진 논리 사이의 형상적 긴장을, 스티븐 홀과 장-누벨의 작품에서는 비가시적 환경 요소와의 인과적 긴장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OOO는 건축 비평의 패러다임을 인간 중심

참고문헌

1. Graham Harman (김효진 옮김), (2023) Architecture and Objects (건축과 객체)
2. Graham Harman (김효진 옮김), (2023) Art and Objects (예술과 객체)
3. 박재용 김동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33권 3호 통권 164호 _2024.6
4. 김종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6 No.07, 2020.7
5. 이규백, 디자인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v.16 no.1, 2003년, pp.45 - 52
6. 양재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Vol.16 No.04, 2021.6
7. 임진우,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제61호, 2018.2
8. 성우제, 한국디자인학회 논문집, Vol.16 No.08, 2021.12
9. 김승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8 n.02, 2012.2